



구제역 코 앞 접근...전남도 방역 준비상 14일 영광군 대마면 한 도로에서 영광군청 소속 공무원들이 차량의 출입을 제한하고 방역을 하고 있다. 방역 장소는 영광과 고창간 경계 도로다. 전북에선 김제에 이어 고창에 두 번째 구제역이 발생했다. ▶관련기사 6면 /김진수기자 jeans@

상생 다짐한지 얼마나 지났다고...

광주시·전남도 에너지밸리 불협화음

도, 산업단지 타당성 조사 市와 협의 없이 용역 발주
전력연구원·연구개발특구 입지 놓고 다시 갈등 양상

상생을 다짐한 광주시와 전남도가 정작 지역의 미래를 결정지을 신산업과 관련해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에너지밸리, 연구개발(R&D) 특구 등 핵심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조차 하지 못하는 등 과거 갈등 양상을 반복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윤장현 광주시장과 이낙연 전남지사가 상생의 '외형'에 치중하기보다는 내실을 기하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3면> 전남도와 전남개발공사는 최근 1억 87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에너지밸리 산업단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14일 용역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용역은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내 한국전력 등 전력그룹사 이전과 더불어 추진

되고 있는 '빛가람 에너지 밸리 조성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에너지 관련 기업이 입주할 산업용지를 혁신도시 인근에 조성하는 방안을 집중 검토하는 것이 과업이다. 산단의 위치, 개발 방향과 규모, 유치업종, 기업수요, 개발방법 등의 분석도 포함됐다. 문제는 광주시 남구 압촌동과 지석동 인근 51만9000㎡ 면적의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에너지 관련 연구기관과 기업을 입주 시키려는 광주시와 사전 협의 없이 전남도가 이를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남도의 용역은 빛가람혁신도시 10km 이내 면적 330만㎡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최종 용역 결과에 따라서는 광주가 배제될 수도 있다. 전남도가 광주 쪽으로 산단을 조성하지 않고 나주 혁신산단을 포

함하거나 빛가람혁신도시 내 산업용지를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감안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도시첨단산단에 전기연구원 본원을 유지하는 한편 전력연구원, 신재생에너지실증센터 등 연구기관을 집적해 관련 기업들을 유치할 방침이다. 이 때문에 전력연구원 등 연구기관의 입지를 두고 전남도와 이견을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에너지밸리 관련 산단 조성을 시도가 따로 추진하면서 자칫 광주·전남이 공동조성한 빛가람혁신도시의 성과마저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전남도가 추진중인 기존 광주 R&D 특구(18.73km)를 8~9km 추가해 빛가람혁신도시 일원을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 광주시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등 에너지밸리, R&D 특구 등 지역 미래 산업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계속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광주가 협의해야 할

사안에 대해 자신의 입장만 고수하고 있어 사전협의 없이 별도로 추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에너지밸리와 관련해 전력연구원 입지를 두고 입장차를 보인 뒤 논의에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역 한 대학 교수는 "단체장이 확고한 의지를 관련 부서에 전달하지 않은 채 추상적인 의미의 상생만 주장하면서 이 같은 일이 빚어진 것"이라며 "현재 상태로 에너지밸리 등을 추진할 경우 한전 등 공공기관들이 곤란을 겪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가톨릭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062)605-1114

끝없는 더민주 탈당행렬

김승남·신학용 의원 "지역민 뜻 따라...국민의당 합류"

김영록·이개호 17일, 박혜자·광주시의원 5명 18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현역 국회의원들의 연쇄 탈당이 견집을 수 없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광주·전남에서 더민주는 안철수 의원이 창당에 나서는 국민의당 바람에 밀려 사실상 2당으로 전락했다. 14일 고흥·보성이 지역구인 김승남 의원과 수도권 3선인 신학용 의원(인천 계양 갑)이 더민주 탈당을 선언했다. 여기에 전남의 김영록 의원(해남·진도·완도)과 이개호 의원(담양·장성·영광·함평)은 17일, 그리고 광주의 박혜자 의원(서구 갑)은 18일 각각 당을 떠난다. 박지원 의원(목포시)은 오는 24일께 탈당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윤석 의원(무안·신안)은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는 대로 탈당을 결행할 것으로 보인다. 김승남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에 몸 담은 지 23년 만에 처음으로 당을 떠난다"며 "당원과 지역민의 거센 뜻을 거스를 수 없었다"고 밝혔다. 전남대 학생회장 출신인 김 의원의 탈

당은 당내 86 그룹(80년대 학번, 60년대 태생)가운데 처음이다. 김 의원은 조만간 국민의 당에 합류한다. 신학용 의원도 이날 탈당선언문을 통해 "오늘부로 더민주에 마침표를 찍지만, 앞으로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싹트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영표 의장 등 광주시의회 의원들도 더민주 탈당 행렬에 가세한다. 조 의장을 포함한 5명 안팎의 의원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하고 탈당을 선언한다. 문태환·김동찬 부의장 등 시의원 5명은 지난 6일 이미 탈당한 상태다. 광주시의회 전체 의원 21명 가운데 비례대표와 당에 잔류하는 강기정 국회의원 지역구 의원 등을 빼고 최대 14명이 탈당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지난 4대(2002~2006년) 당시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로 나뉜 이후, 처음으로 양당 구도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장만채 교육감 원심 확정...직위 유지

대법 "일부 혐의만 유죄"...이용부 보성군수 항소심 무죄

대법원 1부(고영한 대법관)는 14일 뇌물수수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만채(58) 전남도 교육감에게 일부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장 교육감은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그는 교육감 출마를 준비하던 2010년 5월 순천대 기숙식당 운영자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3500만원을 무상으로 빌린 혐의, 같은 해 6월 교육감 당선 이후의 사인 고교 동창 2명과 산학협력체로부터 모두 1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순천대 총장 관사 구입비 1억5000만원과 업무추진비 등 공공 78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업무상 배임·횡령)로 도 기소돼 '표적수사' 논란까지 일었다. 대법원은 그러나 총장 시절 업무추진비 900만원을 횡령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고 나머지는 전부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장 교육감이 취임 이후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 "교육감은 '정치활동을 하는 자'가 아니어서 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를 적용받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거가 끝난 뒤 당선된 교육감이 금품을 수수한 경우는 '교육감선거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정치자금법이 준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서경환)는 이날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이용부(64) 보성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군수는 지난 2014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보물을 제작하면서 정중해 전 보성군수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적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정욱기자 jwpark@

지금 경험할 수 있는 미래
The E-Class

신성자동차(주) 광주 전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번지 / TEL 062226-0001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주)

영부형인 프론트 엔진 및 4륜구동 • E 200 1.99tcc, 1.633kg, 7G-TRONIC PLUS, 제1연비 12.0km/ℓ(도시/연비 10.5km/ℓ, 고속도로연비 14.6km/ℓ), 39마력, 제100km/ℓ 배출량 145g/km • E 250 BlueTEC 4MATIC 2.143cc, 1.935kg, 7G-TRONIC PLUS, 제1연비 14.1km/ℓ(도시/연비 12.4km/ℓ, 고속도로연비 17.0km/ℓ), 2마력, 제100km/ℓ 배출량 140g/km • E 300 3.49tcc, 1.790kg, 7G-TRONIC PLUS, 제1연비 9.7km/ℓ(도시/연비 8.4km/ℓ, 고속도로연비 11.6km/ℓ), 4마력, 제100km/ℓ 배출량 118g/km • E 300 4MATIC 3.49tcc, 1.800kg, 7G-TRONIC PLUS, 제1연비 9.1km/ℓ(도시/연비 8.0km/ℓ, 고속도로연비 10.6km/ℓ), 5마력, 제100km/ℓ 배출량 196g/km • E 350 BlueTEC 4MATIC 2.987cc, 2.045kg, 7G-TRONIC PLUS, 제1연비 12.6km/ℓ(도시/연비 11.2km/ℓ, 고속도로연비 14.7km/ℓ), 39마력, 제100km/ℓ 배출량 136g/km • E 400 4MATIC 2.996cc, 1.933kg, 7G-TRONIC PLUS, 제1연비 9.3km/ℓ(도시/연비 8.1km/ℓ, 고속도로연비 11.2km/ℓ), 5마력, 제100km/ℓ 배출량 190g/km • E 63 AMG 4MATIC 5.461cc, 2.020kg, AMG SPEEDSHIFT MCT 7-speed, 제1연비 7.6km/ℓ(도시/연비 6.5km/ℓ, 고속도로연비 9.3km/ℓ), 59마력, 제100km/ℓ 배출량 230g/km ※ 본 연비는 JIS(제1연비)에 의한 연비이며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하중 및 기타사상 등에 따라 상수변할 수 있으며 차이가 있습니다.